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강력한 ‘견제의 힘’을 주십시오!

내일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결전의 날입니다.

열전 13일, 거리에서 시장에서 일터에서 만난 도민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성토했습니다.

“제발 먹고 살게 해달라”는 절규,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질책, 모두 가슴에 새겨 나라와 충남을 살리는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3년, 절망과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경제, 외교, 안보, 민생 모든 분야에서 퇴보와 역행을 거듭하였습니다.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서민 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사태를 핑계 삼아 총체적 국정실패를 호도하기 바쁩니다.

무모한 정책 실험 강행과 이분법적 편 가르기, 정권 연장에 여념이 없습니다.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는 정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정권입니다.

현명하신 도민들께서 진짜 민심의 경고장을 날려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의회독점까지 완성되어 친문패권의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오만해 지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됩니다.

오만과 독선에 젖은 무도한 정권을 견제할 강력한 힘을 주십시오.

우리 가족과 아이들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미래통합당에 투표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도민들의 선택을 겸허히 기다리겠습니다.

2020. 04. 14(화)

미래통합당 충남도당선대위 대변인 조철희